

# “리&손 커넥션”...리그앙, 이강인 x 손흥민 합작골 ‘주목’

이강인, 중국전서 손흥민의 헤더골 도움 기록  
내년 1월 카타르서 열리는 아시안컵 기대감 ↑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이 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 이강인의 국가대표 활약상을 소개했다.  
리그앙은 22일(한국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이강인이 한국 축구 대표팀 경기에서 손흥민(도르트문트)의 헤더골에 도움을 기록한 장면을 전했다. 이를 두고 리그앙은 “이강인과 손흥민의 커넥션”이라고 설명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 21일 중국 원정으로 치른 중국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2차전에서 3-0 완승을 거뒀다.  
한국은 지난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싱가포르와의 1차전 5-0 대승에 이어

이날 경기까지 2연승을 구가하며 C조 1위를 달렸다. 2023년 마지막 A매치를 승리로 장식하는 유종의 미까지 거뒀다.  
중국전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수확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한국 축구의 현재인 손흥민과 미래로 평가받는 이강인이 처음으로 A매치 득점을 합작하기도 했다.  
전반 45분 이강인이 올린 코너킥을 손흥민이 헤더로 마무리하며 이날 경기의 두 번째 골을 함께 만들었다. 이강인이 도움을 기록

하고 손흥민이 득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리그앙은 이강인이 코너킥을 차는 장면, 손흥민이 헤딩하는 상황 그리고 이강인과 손흥민이 득점 후 포옹하는 순간까지 캡처해 게시글로 올렸다.  
후반 8분에는 반대의 상황이 나오는 듯했다.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골키퍼까지 제치고 빈 골대를 향해 슈팅했지만, 뒤에서 따라온 중국 수비수의 육탄 방어에 막혀 득점에는 실패했다.  
중국전 완승으로 2023년 A매치를 마무리한 손흥민과 이강인은 내년 1월 카타르에서 펼쳐지는 아시안컵을 기대하게 했다. 클린스만은 아시안컵에서 1960년 이후 64년 만에 우승을 노린다.



손흥민(왼쪽)이 21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의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C조 2차전 중국과의 경기 전반 45분 추가 골을 넣고 도움을 기록한 이강인과 환호하고 있다.

## ‘주장’ 손흥민 “2023년 대표팀 생활 행복...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손흥민이 21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의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C조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마친 후 응원단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SNS 통해 축구 팬들에게 감사 인사  
국내 짧은 휴식 후 영국 복귀 예정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도르트문트)이 축구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손흥민은 22일(한국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3년 대표팀의 마지막 경기가 중국에서 끝났다. 11월 대표팀 소집은 그 어느 때보다 추웠지만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전했다.

이어 “선수로 뛰고 있을 때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다. 행복하게 헤드리며 웃게 해드리고 싶다. 많은 책임감이 따르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손흥민은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이 작은 행복함, 에너지뿐이다. 매번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2023 대표팀 생활, 너무 행복하게 했다. 감사드리고 2024년 저희 다 같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클린스만은 지난 21일 원정으로 치른 중

국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2차전을 끝으로 올해 A매치 일정을 마무리했다.  
손흥민은 중국전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3-0 대승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날 승리로 클린스만은 지난 16일 싱가포르와의 1차전 5-0 대승에 이어 2연승을 구가하며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 대표팀 일정을 마무리한 손흥민은 이제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도르트문트에 집중한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손흥민을 비롯한 황희찬(울버햄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재성(마인츠), 황인범(츠베즈다), 오현규(셀틱), 정우영(슈투트가르트), 김승규(알사법) 등 해외파 9명은

자비로 빌린 전세기를 타고 이날 새벽 귀국했다.  
내년 3월 전까지 국내 소집이 없는 만큼, 소속팀 복귀 전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클린스만 감독과 협회 측이 조기 이동을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공장 소속팀으로 복귀한 조규성(미트윌란), 황의조(노리치시티), 송범근(쇼난 벨라레)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파 선수들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귀국한다.  
손흥민은 짧은 국내 휴식을 보낸 뒤 영국으로 돌아가, 오는 26일 오후 11시 홈에서 펼쳐지는 애스턴 빌라와의 2023-2024 EPL 13라운드에 출전할 전망이다.

뉴시스



한화 이글스가 FA 안치홍을 풀었다. 사진은 안치홍(왼쪽)과 손혁 한화 단장. (사진=한화 제공)

프로야구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FA 시장은 하위 팀들이 화끈하게 지갑을 열며 이끌어가는 분위기다.  
이번 FA 시장 스타트는 롯데 자이언츠가 끊었다.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킨 기세를 잊지 못하고 7위의 성적표를 받아 든 롯데는 지난 20



삼성 22일 김재윤과 4년 최대 58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김재윤과 이종열 단장. (사진=삼성 라이온즈 제공)

일 내부 FA인 외야수 전준우(37)와 4년 최대 47억원에 사인했다.  
프랜차이즈 스타(구단과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인 전준우가 이탈할 경우 미칠 파장을 고려해 롯데는 계약에 정성을 쏟았다.  
4년 전 첫 FA 자격을 획득하고 4년 최대 34

## 롯데·한화·삼성, FA 시장 큰손 된 하위권 팀들

역원에 계약하며 잔류했던 전준우를 위해 롯데는 올해 더 많은 돈을 풀었다. 보장 금액만 40억원이다. 이미 서른을 훌쩍 넘은 외야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롯데의 통 큰 베팅은 더욱 돋보인다. 전준우가 선수 생활을 마치고 나면 2년 간 해외 코치 연수도 지원하기로 약속했

한화는 같은 날 오후 내야수 안치홍(34)을 최대 6년 72억원의 조건에 영입했다고 알렸다. 지난 4년 동안 롯데 내야를 지켰던 안치홍은 한화에서 공수 양면에서 무게감을 더해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손혁 한화 단장은 “안치홍은 우리 팀에 꼭

### 롯데, 전준우에 4년 47억원 안기며 ‘FA 1호 계약’ 한화는 안치홍, 삼성은 김재윤 영입해 전력강화

필요한 ‘꾸준함과 성실함’을 모두 갖춘 선수였기 때문에 영입을 망설임 이유가 없었다”며 “선수가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22일 삼성 라이온즈는 KT 위즈의 뒷

필요한 ‘꾸준함과 성실함’을 모두 갖춘 선수였기 때문에 영입을 망설임 이유가 없었다”며 “선수가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22일 삼성 라이온즈는 KT 위즈의 뒷

뉴시스

## 이승용 감독의 기조...SSG, ‘신구조화’ 어떻게 이룰까

“2군에서 잘하는 선수 1군에서 써야 육성 가능”



이승용 신임 SSG랜더스 감독이 2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올리데이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열린 제9대 감독 취임식에서 축하를 위해 자리한 선수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SSG 랜더스의 이상적인 신구조화.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승용 SSG 감독은 21일 올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구조화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이 감독은 “손쉬운 퓨처스 감독과 통화를 했다. 내가 단장을 하면서 느낀 점은 1군에서 선수를 써야 육성이 된다. 아무리 2군에서 잘하고 열심히 해도 1군과 2군 무대는 다르다. 1군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퓨처스 감독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 선수의 기량이 올라왔다고 추천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기용할 생각이다. 폭넓은 기용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선수 육성에 일각이 있다. 2022년과 올해 10월까지 KT 위즈 육성총괄로 일했다.  
다만 기대되는 선수를 묻는 말에 특정 선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모두 원점에서 시작한다. 이 감독은 “거론되지 않은 선수가 서운해할 수도 있고, 전부 우리 팀 선수들이어서 꼭 집어 말하기 쉽지 않다”며 “선수들을 제로베이스에서 볼 것이고, 가장 가까워서 선수들을 본 퓨처스 감독의 추천을 많이 받으려 한다”고 이

이야기했다.  
SSG는 2023시즌이 끝난 뒤 세대교체를 천명했다. 그렇다고 고참 선수들을 전력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베테랑과 유망주의 적절한 조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감독은 “성적과 육성을 동시에 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다. 혼자서 한다면 불가능하지만, 선수들과 소통하고 코칭스태프와 프런트가 도와주면 할 수 있다”며 “나도 마흔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다. 베테랑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체력 안배를 어떻게 할지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불혹이 넘은 팀 내 최고참 추신수와 김강민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추신수는 지난 시즌 112경기 출전해 타율 0.254 12홈런 41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777의 성적을 냈다. 김강민은 70경기에서 타율 0.226 2홈런 7타점 OPS 0.627을 기록했다.  
이 감독은 “아직 두 선수와 만나거나 통화를 해보지는 못했다. 두 선수의 의사를 존중하려 한다”며 “구단과 상의해서 선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갈 생각이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단의 리더다.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 메이저리그 MVP 오타니, 올해 경제효과 4408억원

메이저리그(MLB)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오타니 쇼헤이(29)의 올해 경제효과가 약 504억원(한화 4408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야모토 가즈히로 간사이대 명예교수는 오타니의 올해 경제효과가 약 504억원이라고 발표했다. 2024년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을 경우 약 644억원(6632억원), LA 에인절스에 잔류할 경우는 약 5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오타니가 처음 MVP를 획득한 2021년의 경제 효과는 약 457억원, 2022년은 240억 엔으로 추정했다.  
일본의 우승으로 끝난 월드베이스볼클래시(WBC)에서의 경제 효과는 약 654억원이라고 밝혔다.  
미야모토 교수는 인기가 높은 다저스로 이적할 경우 메이저리그 중계권 수입은 12억엔 증가한 약 81억엔으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으로부터의 응원 투어도 18억엔 증가한 약 30억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